

양계 경쟁력 소식다산(小食多産)이 만들어 간다

- 경북지역 2세 경영인들의 힘찬 출발 -
- 창립총회 및 사료공동구매 MOU 체결 -



▲ 소식다산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7월 30일 농협사료경주공장에서 개최되었다.



▲ 소식다산회 김규동 회장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양계 2세들이 양계경쟁력 제고의 기치를 내걸고 소식다산회(회장 김규동, 이하 소다회)를 발족시키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소식다산(小食多産)은 ‘적게 먹고 많이 낳자’는 뜻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 FTA 등 국내외적인 위기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소다회는 2015년 3월 서로의 목표와 뜻을 같이하는 경상북도 지역 2세 경영인 5명(김규동(낙원농장), 이상환(에덴농장), 김보빈(행복농장), 한충협(푸른농장), 이창길(제일농장))이 모여 결성키로 뜻을 모았으며, 그동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농협사료 경주공장 견학 등을 통해 업무협약 등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소다회 회원들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경희의 멤버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사육규모는 8만수~12만수 정도의 농가로 구성되어 총 50여만수



▲ 소식다산회 회원들(좌부터 김보빈(행복농장), 이상환(에덴농장), 김규동(낙원농장), 한충협(푸른농장), 이창길(제일농장) 사장)



▲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농협사료경주공장 직원과 소식다산회 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창립기념식에서 김규동 회장은 '농장의 경쟁력은 곧 생산성 향상'이라 강조하면서 사료 공동구매를 시작으로 작지만 큰 뜻을 갖고 출발하는 소다회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소다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품질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창립기념식에 이어 소식다산 회원 농가와 농협사료 경주공장(공장장 이학림)과 구체화된 상호협력방안에 대한 업무 협약식(MOU)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사료공장과 생산자 2세들간의 사료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회사는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과 물량확대를 꾀하고 농가들은 단가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등 서로간의 상생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번 MOU를 통해 경주공장은 소다회와 가격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을 통해 농장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즉, 질병컨트롤을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시장 및 질병 등 많은 정보를 공유키로 하고, 선진지 견학 및 자금필요시 1순위 담보로 무이자 대출을 약속하였다. 또한 친환경 및 HACCP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대행하는 등 농장 제반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농장은 생산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 이학림 공장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경주공장도 변화를 도모하게 된 좋은 기회이며,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사료공급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규동 회장은 "소다회는 열려있는 모임으로 생각이 같은 농가들의 가입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고 회원확보에도 주력키로 하였다. 경기도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한영농조합을 롤 모델로 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 경영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재 김동진 국장)